



도지사 - 국회의원, 제주현안 해법 모색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 앞둔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추진 태풍 피해 지원 촉구 필요성 제기... 2공항 논의 등 관심

제주 제2공항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원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실에 따르면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제주지역 의원 3인이 제주도와외 예산정책협의회 개최를 추진 중이다.

예산정책협의회 일정은 제주도가 태풍 '링링',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면서 계속 미뤄

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제주를 통과한 태풍 '타파'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협의회 일정은 더 미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태풍으로 인한 제주 지역 피해가 큰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해마다 빠른 시일 내 협의회가 마련돼 중앙 질청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산정책협의회라는 타이틀을 달기는 했지만 이번 협의회는 제주 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의 자리가

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제주지역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의 갈등에 대한 해법과 관련해서도 머리를 맞댈 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2공항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첨예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10월 기본계획고시를 목표로 절차를 밟고 있어 그 이전에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제주도내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도민공론화에 대한 특단의 결단을 촉구하는 1만인 청원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원외를 지사는 도의회 긴급

현안 질문에서 제2공항과 관련 "토론회와 설명회·공청회가 반복됐고, 지금은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하고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단계"라며 공론조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한편 국회 예결위는 내달 22일로 예정된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끝난 이후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와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와 예산소위 등의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7개 시도와 순차적으로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JDC 청소년 캠프 참가 모집

'2019 JDC와 함께하는 제주탐방 청소년 캠프' 2차 참가자 모집이 23일 까지 이뤄진다.

한라일보는 올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함께 4회에 걸쳐 JDC 청소년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캠프는 도내 초(4-6)·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회당 모집인원은 20명(선착순)이다. 참가비는 무료다.

2차 캠프는 오전 10시~오후 5시 1일 캠프 형식으로 운영된다. 환경·쓰레기 문제를 주제로 팀별로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며 진단해보는 현장체험과 캠페인, 간단한 보고서 제작으로 이뤄진다. 접수는 이메일(brighthh@naver.com)로 하면 되며 참가자 이름, 학교(학년), 연락처를 기입하면 된다.

돼지열병에 수렵장 운영 보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심각단계 발령에 도내 수렵장 운영이 보류됐다.

제주도는 올해 11월 28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수렵장을 설정해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16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국내 최초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위기 대응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피해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수렵장 운영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더불어 도는 ASF 감염 매개체인 야생 멧돼지 개체수 감소를 위해 상시적으로 유해야생동물 기동반을 운영한다.



미국 향하는 문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한미정상 회담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여사가 22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노영민 비서실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 환송객들과 함께 전용기로 이륙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한국시간으로 24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며 두 정상은 비핵화 관련 논의에 관심이 모인다.

'4차 산업 혁명 친화적 탄소 없는 섬' 미래전략 실천에 속도 내는 제주도

56개 신규사업 반영 검토

제주특별자치도는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4차 산업 혁명 친화적 탄소 없는 섬, 제주'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제주도의 이 계획은 UN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와 국내외 여건 등을 감안해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 미래전략의 일환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지난 3월과 8월, 도민 체감형 정책 발굴을 위한 제주그린리빙 포럼을 개최했다. 아울러 8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산학연관 소통공간 협의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9월에는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 등에 대한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한라일보

제주의 속살 거닐며 힐링하세요

2019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11차 참가자 모집

한라일보는 4월부터 12월까지 매달 2회 주말을 이용한 힐링 프로그램인 '2019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를 실시합니다.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으로 이미 국제사회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제주자연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를 활용한 생태관광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에코투어 프로그램은 제주자연의 속살을 직접 보고 걸으면서 일상의 쉼을 위로받고 치유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2019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프로그램 참가 신청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ecotour.ihalla.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11차 에코투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일 시: 2019년 10월 5일 08시 ~ 16시
▶대상: 국내외 관광객 및 제주도민 (20세 이상 성인 참여 가능)
▶모집인원: 40명 (선착순 마감)
▶코스: 1100도로 ~ 18림반 ~ 색달천 ~ 옛표고밭길 ~ 망월역 ~ 셋오름 ~ 죽은삼형제오름 ~ 한대오름 ~ 한리산둘레길 ~ 18림반
▶집결지: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정문, 08시 대형버스로 이동
▶준비물: 배낭, 등산화, 긴팔, 긴바지, 모자, 장갑
▶신청기간: 2019년 9월 23일 ~ 10월 1일
▶참가접수: 한라일보 인터넷 에코투어 홈페이지(<http://ecotour.ihalla.com>)
▶참가비: 1만2천원 (여행자보험·중식비 등 포함)
▶입금계좌: 농협 301-0104-3643-81 (예금주: 한라일보)
▶문의: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사무국 ☎ 064)750-2291, 2151

도정 공약에 도민 목소리 담는다

도, '도민배심원단' 출범
공약 조정·변경 심의 착수
투표로 최종 권고안 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7기 원외를 도지사 공약의 조정·변경 여부 결정에 도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한 '도민배심원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이날 도청 탐라홀에서 '도민배심원단' 위촉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총 55명으로 구성된 민선7기 '도민배심원단'은 구성부터 전문기관에 의뢰해 ARS응답 시스템으로 선발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성별·연령별·지역별로 도민 인구비례를 고려, 도민 대표성을 높였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전상태 행정부지사는 위촉식에서 "공약 발표 당시 이후 여건의 행정환경의 변화로 개별 공약을 폐지 또는 조정할 필요가 있거나 공약 내용을 오히려 확대해야 할 사항도 있을 것"이라며 "심도 있게 평가해 최종권고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심원단은 5개 분임으로 나눠 분임별로 상정된 공약 조정·변경 안건을 선정, 치열한 토론을 전개하며 본격 심의에 착수했다.

1분임에선 '도민불편해소 통합 시스템 구축', '4·3 완전한 해결을 위해 나아가는 한걸음' ▷2분임은 '제주 환경공간플러스센터 설립',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성장 동력 육성' ▷3분임은 '제주자원활용 자주자원 확보',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 일자리 1만명 창출'을 심의한다. 또 4분임은 '제주해양 경제도시 조성 국책사업 유치', '제주관광 질적성장 추진'을, 5분임에선 '맞춤형 농산물 거래정보시스템 구축', '제주 소상공인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분임별로 4건의 공약 조정·변경 및 평가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배심원단은 이날 1차 회의에 이어 오는 28일 2차, 10월 12일 3차 회의를 진행하며 3차 회의에서 심의 안건에 대한 전체 투표를 통해 최종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상윤기자

2019 제주어 교육 사업

제주 이주민을 위한 '2019 제주어문화교실' 수강생 모집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제주어센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2019 제주어 교육 사업을 지원받아 제주 이주민을 위한 '2019 제주어문화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주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민들은 물론, 제주어를 배우고 싶은 도민에게 기초적인 제주어를 교육함으로써 이주민들이 제주에 정착하여 사는 데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2019 제주어문화교실'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강좌명: 제주 이주민을 위한 '2019 제주어문화교실'
○강좌기간: 2019. 10. 4.(금)~11. 22.(금)
○강좌일시: 강좌 기간 내 매주 금요일 13:00~16:00
○강좌장소: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2호관 1층 1102호(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신청기간: 2019. 9. 23.(월)~9. 30.(월)
○모집인원: 50명(선착순)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전자우편(halla2712@jejunu.ac.kr)으로 제출
○수강료: 무료(차량 소지자 일일 주차권 배부)
○문의처: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제주어센터(064-754-2712)
○강좌 세부 내용

번호	강좌명(주제)	강사	번호	강좌명(주제)	강사
1	제주어의 이해	신우봉	5	해녀 문화로 배우는 제주어	김순자
2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제주어	배영환	6	관광으로 배우는 제주어	김보향
3	역사 속의 흥미 있는 제주어	강문종	7	매체로 배우는 제주어	김보향
4	음식으로 배우는 제주어	김미진	8	제주 문학으로 배우는 제주어	김동윤

* 위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제주어센터

2019 제2회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 대토론회

국제정세 다변화 속 제주해양수산업의 진단과 전망

일시: 2019. 9. 25(수) 개최 14:30 ~ 폐회 18:00 장소: 매죽골래드제주 크리스탈룸(제주시 노연로 80)

■ 모시는 글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양수산업은 과거에 비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및 국·내외적인 여건변화로 어선어업, 양식어업, 마늘어업 및 수산물 가공·유통 등의 각 분야에서 커다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에서는 각 분야별 현재의 실태를 진단하고 전망해 봄으로써 난관을 극복함과 동시에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하기 위하여 대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인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9월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

대표이사장 김석중
공동이사장 한용선
공동이사장 강문수

■ 행사문의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

대표이사장 김석중 010-3698-3411
공동이사장 한용선 010-9687-6605
공동이사장 강문수 010-4115-3019
사무국장 김상현 010-3693-9117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4:00~14:30	▶ 등록
14:30~15:00	▶ 국민의례
	▶ 개회사: 김석중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 대표이사장)
	▶ 축사: 원외홍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국회의원,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장
▶ 인사말: 한용선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장	
15:00~15:10	▶ 기념촬영 및 휴식
주제발표 15:10~16:20	▶ 어선어업분야: 박성욱 전국어민수협중앙회 남해연구소 소장
	▶ 양식어업분야: 이상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장
	▶ 마늘 및 해녀공동체어업분야: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균형발전연구센터 연구위원
▶ 수산물 가공·유통분야: 오명철 국제대학교 교수	
16:20~16:30	▶ 휴식
패널 및 종합토론 16:30~18:00	[좌 정] 김상현 전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 [토론자]
	▶ 어선어업분야: 김상문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조합의회장
	▶ 양식어업분야: 이상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장
▶ 마늘 및 해녀공동체어업분야: 이기철 전국어촌계협의회 제주지역회장	
▶ 수산물 가공·유통분야: 김영선 수산물가공유통협의회회장	
18:00~	▶ 개별토론 및 만찬